

내년 중등교사 채용 최대 5100명... 2030년엔 30% 감소

교육부, 내년 4700~5100명 채용
기존 계획보다 1100명가량 확대
고교학점제·기초학력·AI 수요 반영
소규모학교·신도시 지역여건 고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2027학년도 중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기존 계획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 새 교육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다만 중등 신규채용 규모는 2027학년도 4700~5100명에서 2030학년도 3300~3700명으로 줄어들어, 이후에는 감소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방향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별 교육 여건과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AI 인재양성 등 주요 정책 수요를 함께 반영

한 것이 특징이다.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명, 21%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2025년

229만9000명에서 2030년 160만1000명으로 30.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92만1000명에서 171만6000명으로 10.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연도별·학교급별 변동 추이를 반영해 교원 수급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초등 신규채용 교사 수는 2027학년도 2700~2900명 인략에서 2028학년도 2600~2900명, 2029학년도와 2030학년도에는 각각 2500~2800명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 신규채용 교사 수는 2027학년도 4700~5100명 인략에서 2028학년도 4200~4600명, 2029학년도 3500~3900명, 2030학년도 3300~3700명 수준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발표된 기준 중장기 수급계획에서 2027년 중등 신규채용 규모가 3500~4000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7학년도 기준으로는 기존 계

획보다 1100명가량 늘어난 셈이다.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유입 지역의 교육여건도 수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학교에는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서는 학교·학급 신설과 과밀학급 완화를 뒷받침한다.

주요 교육정책 수요도 교원 배치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을 지원하고,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AI·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AI 중점학교를 2026년 1000교에서 2027년 1500교, 2028년 2000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 중점학교는 일반 학교보다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해 운영하

는 학교다.

다만 실제 연도별 신규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7학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중 최종 공고된다. 연도별 초·중등 교원 정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2월경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흐름은 분명하지만, 학교 현장의 수요는 일률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며 "한쪽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원 협의 과정에서 전체 학생 수뿐 아니라 지역별 학급 여건, 선택과목 운영, 기초학력 지원 같은 실제 배치 수요를 함께 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이공계 인재 주택 공급... 최장10년 거주

마포 성산동에 17호 첫 공급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대상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보증금 3000만~7000만원 차등



마포구 성산동 이공계 인재 성장 주택 내부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이공계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을 처음 공급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성산동에 성장주택 17호를 공급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이공계 전성시대' 정책의 핵심 전략인 '3NO(학비·성과·주거비 부담 NO) 1YES(이공계 자금심 YES)'의 후속 사업이다.

성장주택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19~39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성산동 성장주택은 연세대·서강대·홍익대 등 주요 대학과 대중교통으로 20~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전용면적 28~39㎡

규모의 17가구로 구성됐으며,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냉방기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도 기본 제공된다.

보증금은 3000만~7000만원, 월 임대료는 30만~72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에 책정됐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성산동 공급을 시작으로

관악구 신림동(60호), 동대문구 이문동(23호)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장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 입주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공계 인재들이 주거 걱정 없이 연구와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수습기자 aykim@

수원시, AI·스마트도시 7개 사업 선정

국비 등 외부재원 674억 확보
사업비 80% 조달해 시비부담 최소화

수원특례시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미래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주요 AI·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며 84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AI 선도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한 AI·스마트도시 분야 공모사업 7건에 선정돼 총 84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 613억 원, 도비 1억 원, 기타 외부재원 60억 원 등 총 674억 원을 확보해 시비 부담은 172억 원으로 최소화했다. 전체 사업비의 약 80%를 외부 재원으로 조달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 재원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인재 양성부터

도시 인프라 구축, 시민 안전 서비스까지 AI 생태계 조성 전반을 아우른다.

먼저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중심대학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국방 AI 인재양성 사업 등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과 기업,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2026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과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사업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배송 서비스 사업을 통해 광고호 수송 등 8개 거점에 배송 인프라가 구축되며, AI 기반 지능형 포트를 탑재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고려대, 세계대학 영향력 12위... 1년 새 59계단 상승

1603개 대학 중 역대 최고 순위
일자리·경제성장 부문 세계 1위
책임 있는 소비·생산 부문 3위



고려대학교가 2026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1년 만에 59계단 오른 12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고려대는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가 발표한 '2026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기준으로 전 세계 대학의 교육·연구·사회 기여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다. 올해는 1603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했다.

장'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부문에서는 세계 3위, '산업·혁신과 인프라' 부문 세계 19위를 기록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대학 구성원의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해 개교 120주년을 맞아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대학'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인공지능(AI)과 인간 지능(HI)을 융합한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혁신을 추진해왔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상상플랫폼, 글로벌 MICE 행사 잇단 유치

인천시·관광공사, 중국 기업회의 유치
11월 내외국인 1500명 인천 방문

인천의 원도심 복합문화공간 '상상플랫폼'이 대규모 국제 MICE 행사와 글로벌 기업회의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중국의 대규모 보건·의료케어 기업이 주최하는 글로벌 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 4월부터 펼친 맞춤형 찾아가는 세일즈와 5월 현장 실사를 통해 6월 2일 최종 확정되었으며 기업 회의는 오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상상플랫폼에서 약 1,500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전체 기업 회의를 비롯해 하버파크호텔 숙박, 개항장 및 송도 투어 등이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20일에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행사인 '직접판매세계대회 웰컴디너' 행사 역시 상상플랫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 세계 MICE 전문가들의 인목이 집중되면서, 상상플랫폼의 글로벌 MICE 명소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옛 곡물창고를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역사적 가치와 감각적인 트렌드를 동시에 담아 이색적 경험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니즈에 적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유지상 사장은 "앞으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해외 기업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상상플랫폼을 인천 MICE 산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승영 기자 sy1321@